광주 군공항 이전후보지 '바다 낀 전남 서남권' 부상

무안·함평·영암·강진·장흥·해남·신안·진도·완도 거론 市, 10월 후보지 선정 용역 발주 … 주민투표 통과 관건

국방부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여 용역 결과가 주 목된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과업 내용, 기간 등을 확정하는 준비작업을 거쳐 오는 10월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예비 이전 후보지는 국방부가 선정해 군 공항 이 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지만, 광 주시도 자체적으로 검토한 뒤 국방부와 협의를 거 쳐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는 국방부의 예비 이전 후보지 발표만 기다리다 이전 사업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경기 수원시를 교훈 삼아 직접 나 서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용역 내용에는 작전성, 경제성, 갈등 관리 등 전 반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무안 공항으로 군 공항을 옮기는 방안과 제3 지역에 군 공항을 별도로 건립하는 방안을 놓고 비용, 작전성 등을 비교하는 과정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안이 아니더라도 이전 후보지로는 바다를 낀 전남 서남권 군 단위 지역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 다. 시는 타당성 검토 당시 이전 건의서에 무안을 비 롯해 함평, 영암, 강진, 장흥, 해남, 신안, 진도, 완도 등 9개 군을 거론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시나 산악 지역을 제외하 고 바다와 인접한 서남권 군이 대부분 포함됐다. 원 자력발전소가 있는 영광은 빠졌다.

하지만, 군 공항 시설은 대표적인 님비시설로 각 인돼 있기 때문에 주민 동의가 쉽지 않아 절차상 주 민투표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광주 시는 이전 후보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주민의

복지향상과 소음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소음완충지역 매입과 이주대책 지 원, 소음피해보상 지원 등이 있고,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복지시설 지원 등의 편익시설 설치사업이 포함 아울러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소득증대 시설 지

원, 지역개발계획 지원 등도 이뤄지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각 지역 공시지가를 토대로 보상비

를 산정하기 위한 표본의 개념이었다"며 "이들 지 역 가운데 후보지가 결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광주시는 내년까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 고 2022년까지 군 공항을 옮겨 그 자리에 2025년까 지 신도시인 가칭 솔마루시티를 조성하기로 하고 로드맵을 마련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흡연예방 인형극' 관람하는 어린이들

'찾아가는 흡연 예방 인형극'이 11일 광주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서구지역 유치원생들이 인형극을 보 며 즐거워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맛집·숙박 등 사용

관광할인카드 내년에 나온다

시·도·관광공사 '남도투어패스' 협약

광주와 전남지역의 관광자원, 맛집, 숙박, 교 통 등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선불식 관광할인 카드가 내년부터 선보인다.

광주시와 전남도,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 사, (주)유비파트너스, (주)남해관광은 11일 광 주시청 세미나실에서 '남도투어 패스' 개발·운 영 업무협약을 했다.

남도투어 패스는 충전식 선불카드로, 개발과 시험 과정을 거쳐 내년 초 서비스에 들어갈 예 정이다.

광주시, 전남도, 관광공사는 관광지·맛집·숙 박 등 할인 가맹점 추천과 축제 등을 연계한 지 원, 마케팅·홍보활동을 한다. 유비파트너스와 남해관광은 관광콘텐츠, 홈페이지 개발·운영, 가맹점 발굴 등을 추진하게 된다.

여행 종합 플랫폼으로 남도 관광콘텐츠와 남 도투어 패스 관련 서비스를 인터넷과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모바일에서는 현재 여행자의 위치, 근처 맛 집, 관광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염방열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이번 협약 식을 통해 남도투어패스가 남도 관광객의 관광 욕구를 충족시켜 새로운 관광패러다임을 만들 고 남도여행 종합 브랜드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개최하는 '한 여름밤 의 정책파티'에 문재인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상임고문 등 당내 대권 후보들의 참석 여부가 관심

11일 더민주 광주시당에 따르면 12일 오후 6시 광 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광장에서 당원과 시민들 이 함께 꾸미는 '한 여름밤의 정책파티'를 개최한

'정책파티'는 광주시당의 신임 위원장 선출을 위 한 정기대의원대회 하루 전에 열리는 전야제 성격

광주시당은 이 행사에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등 당내 대권 후보들을 초청했다. 안 지사 는 영상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 전 대표는 아직 회신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당은 또 정계복귀가 임박한 손학규 전 민 주당 대표에게도 초청장을 보냈다. 손 전 고문은 아 직 참석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날 더민주의 대권 후보 중 한 명인 박원순 서울시장 은 정책 강연에 이어 질의·응답, 객석과의 즉석미

문전 대표와 손전 대표가 참석하게 된다면 박시 장과 함께, 야권 대선 후보들이 자연스럽게 한자리

이날 당권 후보인 추미애·김상곤·이종걸 의원을 비롯해 최고위원 경선 주자들도 대거 참석할 예정

이 모여 정책파티 행사를 여는 것은 드문 경우다"면 서 "대권후보들이 참석해 자리를 당원과 시민과 자 연스러운 스킨십을 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편 더민주 광주시당은 13일 광주시당위원장 선 출을 위한 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광주시당위원장 경선에는 이형석 전 광주시 경제 부시장과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이 맞대결을 펼치고

경선은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ARS투표(50%)와 광주 소속 전국대의원의 현장투표(50%) 합산을 통 해 시당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더민주 광주시당 오늘 '한 여름밤의 정책파티'

시당위원장 선출 대의원대회 전야제 박원순 강의 ··· 문재인·손학규 참석 관심 팅을 갖는다.

에 모이게 돼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더민주가 당원과 시민

광주도시공사 4년 연속 가등급 … 최상위 기관 영예

전남개발공사는 중위권

행자부 340개 지방공기업 평가

광주도시공사가 광주·전남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경영평가에서 최상위 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전남개발공사는 올해 '탈꼴찌'는 했지만, 여 전히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전국 340개 지방공기업의 2015년 경영평 가를 확정하고 11일 발표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등 4개 분야에 대해 30여 개 세부지표의 점수를 매기고 이를 합산한 성적 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최고등급인 '기'부터 최하등급인 '마'까지 5 이 최하 등급인 마등급의 불명예를 안았다. 개 등급으로 나뉜다.

주요 평가 대상 광주 공기업은 광주도시공 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도시철도공사, 광 주환경공단 등 8곳이다. 전남은 전남개발공사 와 상하수도 공기업을 운영하는 나주, 순천 등 모두 21곳이다.

광주도시공사는 매출액 148% 증가, 당기순 이익 285억원 달성 등 경영실적 개선, 경영성과 등으로 가등급으로 최상위 기관에 선정됐다. 4 년 연속 가등급 경영평가 성적도 이어갔다.

4024억원의 매출과 58%에 불과한 낮은 부채

비율 등도 재무 건전성에 한몫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해 최하 등급인 '마등 급'에서 '다등급'으로 올라섰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3년 연속 나등급을 받 았다. 역무원 등 현장 용역 인력의 직영화를 통 한 안전관리 강화, 책임경영 실현 등 경영전반 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환경공단은 다등급으로, 지난해 나등급 에서 한 단계 내려 앉았다. 김대중컨벤션센터 는 나등급을 받았다. 지난해는 다등급을, 2013 년과 2012년 평가에서는 나등급이었다.

광주는 상하수도 공기업 평가에서 모두 중하 위권인 다등급을 받았다.

시군구 공기업 평가 중 상수도 분야에서는 순천시와 영암군이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광양 시와 나주시가 나와 다등급을 받았다. 화순군

하수도 분야에서는 순천과 광양이 나등급을, 나주시가 마등급으로 꼴찌 등급을 받았다.

경영평과 결과는 지방공사와 공단 임직원의 평가급 차등지급에 반영된다. 행자부는 하위평가를 받은 기관 중 경영진단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 축소, 조직개편, 법인 청산 등 경영개선명 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는 지 방공기업경영정보시스템(클린아이, clean→ eye.go.kr)에 공개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